

배포 일시	2023. 2. 2.(목)		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 홍예표 (044-201-3846)
보도일시	2023년 2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민관합동 TF 출범

- 2일 첫 회의서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, 사고 대응요령 마련 등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관련 사고 등에 대응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민·관 합동 TF(이하 전기차 합동 TF)」를 구성하고 2월 2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전기차 합동 TF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을 TF 팀장으로 하고, 교수, 연구원, 소방,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협회, 배터리 제작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,
- 향후 논의될 안전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여 민·관이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전기차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, 충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문열림 등 비상탈출장치 관련 사안, 화재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향후 TF에서 함께 다루어질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최근 전기차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한 행동요령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소비자 대응 가이드라인 등 마련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.
- 전기차 합동 TF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주기적(매주 또는 매월)인 회의를 통해 전기차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R&D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, 소비자 대상 홍보방안 마련 등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  - ① (제도개선) 배터리 이력관리체계 구축,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 관리 기반 마련,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대상 확대 등
  - ② (R&D) 전기차 제작안전을 위한 사전인증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, 운행안전을 위한 검사기술 및 장비 고도화, 전기차 관련 인력양성 등 전기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 논의
  - ③ (홍보 등) 전기차 이용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평상시 차량 관리요령 및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마련, 대국민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집중홍보 방안 등 논의
-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최근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” 면서,
  - “전기차는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TF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